

## 민수기

### 메시지 3

##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봉사

성경: 민 3:1-39, 4:1-33

### I. 민수기는 봉사에 관한 책이며, 3장과 4장은 거룩한 봉사를 다룬다.

- A. 민수기에서 우리는 교회 봉사에 관한 완전한 예표를 본다. 민수기에 나오는 봉사는 교회 봉사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 민 3:1-39, 4:1-33, 롬 12:5-8, 11.
- B. 봉사는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돌보기 때문에 거룩하다 — 민 3:7-8, 4:4-16.
- C. 거룩한 봉사의 기본 원칙은 혼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봉사가 생명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봉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신성한 행정 아래 있으며 따라서 좋은 질서 안에 있다 — 민 3:7.

### II. 거룩한 봉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 민 3:3, 6, 9-10.

- A.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받은 이들로서 직접 하나님을 섬겼다 — 민 3:3.
  - 1. 제사장들은 성막 앞 동쪽, 곧 해가 뜨는 쪽에 진을 쳐야 했다. 그들은 회막 입구를 지켰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사장들을 통과해야 했다 — 민 3:38.
  - 2. 제사장들은 성소(sanctuary: 본 개요에서 성막 전체를 가리킴—역자 주)의 임무, 곧 성소(Holy Place: 이 메시지에서 성소는 여기에서만 성막의 첫째 부분인 성소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역자 주)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 민 3:32, 38.
    - a. ‘임무’라는 단어는 책임을 가리킨다 — 민 3:7, 32, 38.
    - b. 제사장들이 성소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소 전체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레위인들은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직분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었다 — 민 3:9, 12, 17.
  - 1. 제사장들의 사역인 제사장 직분 안에는 레위인들의 봉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실무적인 일들이 있었다 — 민 3:25-37.
  - 2. 레위인들의 봉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인 회막, 곧 증거의 성막을 돌보는 것이었다 — 민 18:1-4, 6.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3 (계속)

- a. 성막과 그 내용물을 돌볼 때 레위인들은 직접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과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 민 3:9, 12, 17.
  - b.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단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레위인들은 성소와 제단을 돌보는 일에서 제사장들의 지시 아래서 봉사했다 — 민 18:5-6.
- C. 제사장들은 모든 기구가 딸린 증거의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하였다. 이 증거의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방면을 보여 주는 예표이며, 신약의 믿는 이들은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한다 — 민 3:25-26, 31, 36-37, 앱 3:8, 고후 3:3, 딤후 4:6.
1.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히 13:10)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며, 성막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골 2:9).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요(요 1:14)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온 존재를 누린다(14:2, 6, 20).
  2.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한다 — 앱 3:8.
    - a. 사역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 고후 4:1, 3:3, 6, 8, 벰전 4:10-11.
    - b. 신약의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속을 받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급해 주고(고전 1:23, 2:2), 생명의 공급을 받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해 준다(앱 3:8, 골 1:27-28).

**III. 민수기에 묘사된 거룩한 봉사는 활동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활동적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활동 곧 그분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 민 4:1-33.**

- A. 성막을 옮길 때 곧 성막이 진진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해야 할 어떤 의무들이 있었다.
1.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봉사를 정해 주었다 — 민 4:19, 27-28, 33.
    - a. 레위인들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들의 지시 아래서 봉사했다.
    - b.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낸 관념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받은 관점의 지시 아래서, 곧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영의 지시 아래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민 3:3, 출 28:41.

## 민수기

### 메시지 3 (계속)

2. 제사장들은 주된 일들 곧 중요한 일들을 돌보았고, 고핫 사람들(레위인들)은 어떤 부차적인 일들을 돌보았다 — 민 4:5-14.
    - a. 성소의 기구들을 돌보는 것은 주된 일들을 돌보는 것이다.
    - b.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돌보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돌보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 민 4:5-6.
    - c. 고핫 사람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운반했다(민 4:2-4, 15, 17-20, 34-37).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의 확대인 교회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 B.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 민 4:5, 25, 31-32.
    1. 성막의 움직임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 어깨에 달려 있었다 — 수 3:11, 13-15, 17.
    2. 주님은 우리가 언약궤와 성소의 기구들과 회막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 움직이신다 — 수 3:3, 11, 13-15.
  - C.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짝을 이룰 사람이 그분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마 28:18-20.
    1.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 행 1:8, 13:1-3.
    2. 하나님은 그분과 짝을 이루고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을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기본 원칙이다 — 겔 1:15-21, 고전 6:17.
    3. 그리스도는 오늘날 온 땅에서 움직이고 계시며, 그분과 하나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 — 행 1:8, 요 15:4-5, 16.
      - a. 우리는 오늘날의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다.
      - b. 하나님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움직이신다 — 아 7:11-12, 계 2:4-5.
- IV. 구약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에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직 한 무리 곧 제사장의 무리만 있다 — 롬 15:16, 벧전 2:5, 9, 계 1:6, 5:10.
- A. 제사장들은 성막을 옮길 때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해야 할 봉사를 정해 주었다 — 민 4:5-14, 19, 27-28, 33.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3 (계속)

- B.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수행한 일들은 예표였지만, 신약의 제사장들인 믿는 이들은 그 일의 실재를 실행해야 한다 — 뱀전 2:5, 9.
1. 레위인들의 봉사가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신약의 제사장들이 외적인 레위인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신약의 제사장 직분의 내적이며 영적인 관점의 감독 아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계 1:6, 5:10.
  2. 레위인의 봉사는 제사장의 관점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외적인 봉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 롬 12:4-13, 15:16, 뱀전 2:5, 9, 4:10-11.
  3. 우리는 제사장 직분의 내적인 관점 아래서 외적인 일들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4. 우리는 외적이고 실지적인 일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레위인의 봉사는 제사장 직분의 관점과 감독 아래 있는 것이다 — 요일 1:2-3, 2:25, 5:11-16.
- C.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의 일과 레위인의 일이 둘 다 있어야 한다 — 롬 1:9, 15:16.
1. 한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봉사에 참여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실지적인 일들을 돌보아야 한다.
  2. 어떤 봉사든 그것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해야 한다. 모든 봉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봉사이어야 한다.

### V. 민수기 4장 3, 23, 30, 35, 39, 43절에 나오는 ‘봉사’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군 복무를 가리킨다.

- A.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룩한 봉사는 전쟁과 관련된다.
- B.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투원으로 여겨야 한다 — 롬 15:16.
1.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다 — 엡 3:8, 4:12, 16, 6:10-12.
  2. 신약의 제사장들은 전투원이며, 우리의 제사장 봉사는 전투이다 — 계 5:10, 19:11-14.
- C.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영적인 일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것이 영적인 영역의 일들을 만지는 한 본성에 있어서 전쟁이다 — 고후 10:3-5.

## 민수기

### 메시지 3 (계속)

1.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행정을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일종의 전쟁이다 — 엡 1:17-18, 3:8, 14-19, 4:12, 6:10-12.
2. 우리의 눈이 주님에 의해 열렸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의 본성이 전쟁이라는 것을 볼 것이다.

#### VI. 보상 혹은 대가가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 — 민 18:8-32.

- A.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몫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집, 유업, 땅, 옷, 음식, 모든 것이셨다 — 민 18:31.
- B. 오늘날 신약에서 레위인의 봉사는 제사장 직분과 결합되었다 — 뵤전 2:5, 9.
  1.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제사장들이며 또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다.
  2. 우리의 제사장 봉사와 레위인 봉사에 대한 유일한 보상, 유일한 대가는 그리스도이다 — 마 25:23, 딤후 4:8, 계 3:20-21.